

재난지원금 25만원, 본인 카드로 받는다...자산가는 제외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소득	일반국민		소상공인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296만명)	기초수급자 외 일반국민	기초수급자 외 일반국민	소상공인
10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상생소비지원금 10% 카드캐시백 최대 30만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00만~9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소득하위 8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인당 추가 10만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00만~9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자료: 기획재정부

연 소득이 하위 80%에 속하는 가구라 하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성인의 경우 1인 25만원의 재난지원금

을 본인 카드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4월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은 정부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국민지원금 지급

소득 하위 80% 기준·중위소득 180% 유력 검토중
 4인 가구 880만원 정도 될 듯...이달 내 기준 마련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등 고액자산가 배제

을 위한 소득 하위 80% 기준 마련을 논의 중이다. 현재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 기준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올해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을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의 180%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월 경우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1036만원 ▲6인 1193만원 등으로 나뉜다. 전체 2320만 가구 중에서는 약 1855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6월 건강보험료 납입 자료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 등을 종합해 이달 말 정확한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

가입자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추후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득 하위 80%에 포함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직 정확한 기준은 마련 중이지만,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했을 때 고려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등은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약 15억원이다. 지역과 주택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세 20억~22억원 수준 주택이 해당한다는 계산이다.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이 기준이라는 뜻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본인 명의 카드로 직접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자녀를 둔 3인 가구라면 가족 3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된다.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등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지원금 수령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지원금은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급된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3인 가구의 세대주가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50만원을 수령하고 어머니가 25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달 내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지급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전남 난대숲 피톤치드, 소나무보다 3.6배 높다

완도수목원 붉가시나무 pptv 높아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해부터 전남 지역 산림의 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난대숲의 피톤치드(생리활성물질) 발생량이 소나무숲보다 최대 3.6배나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피톤치드는 숲속 식물이 생존을 위해 박테리아나 해충 등을 퇴치하기 위해 만드는 살균성 물질이다. 인체의 스트레스 완화, 심신안정 등 건강증진 효과가 있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2018년부터 전남의 주요 난대수종인 붉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동백나무, 황칠나무 군락지와 온대수종, 피톤치드 양이 많다고 알려진 소나무숲의 피톤치드 발생량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계절별로 난대숲의 평균 피톤치드 발생량이 소나무숲보다 1.1~3.6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수목 생장이 가장 활발한 여름철이 다른 계절에 비해 확연히 높았다. 수종별 비교에서는 다섯 수종이 비슷한 수치지만 특히 붉가시나무숲의 테르펜류 농도(단위 pptv)가 1730pptv로 소나무숲 1659pptv보다 더 높았다.

붉가시나무는 완도수목원 60% 정도의 면적에 자생하는 수종이다.

2013년과 2014년 LULUCF(토지이용·토지전용·산림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흡수량 평가시스템) 분야 국가고유계수에 따르면 탄소흡수량이 단연 으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난대지역 상록활엽수림이 최근 20년 간 약 2.7배 늘어나는 등 기후변화로 난대숲 분포 면적이 확대될 것을 고려하면 향후 붉가시나무 활용 방안에 대한 제도명이 기대된다.

김정환기자

7월 조심할 4대 재난은 호우·폭염·물놀이·산사태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광주시는 4일 7월에 중점관리할 재난안전사고로 호우(장마), 폭염, 물놀이, 산사태사고 등 4개 유형을 선정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마는 통상 6월 중순께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마전선이 형성된 후 7월 하순께 종료됐으나,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시작 시기가 늦은 '지각장마'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압계 동향이 바뀌면서 찬 공기의 세력이 약화되고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커지면서 정체전선이 서서히 북상하고 있어 7월초를 전후해 서서히 장마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평균 장마기간이 31.5일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장마는 8월 초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으며, 강수량의 지역

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주택 하수구와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 안전사고 행동요령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

더불어 호우나 태풍 특보가 발령되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산사태 취약지역에선 기상예보에 주의하고 미리 대피 장소와 유사 시 연결 가능한 비상연락처 등을 알아둘 것을 권고했다.

광주시는 산사태 예방과 선제대응을 위해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활용해 산사태 취약지역, 대규모 산지전용지, 임도 신설 사업지 등에 대한 사전예찰 활동과 안전관리 등도 실시중이다.

폭염과 열대야로 인한 온열질환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온난 고기압으로 이상기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날은 가급적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 노약자와 영유아는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폭염 특별대책기간은 9월말까지다.



지난 6월 28일 시간당 20mm 안팎의 폭우가 내린 광주 북구 두암동 말바우사거리 인근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사진=독자 제공)

무더위와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에는 물놀이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광산구 임곡교(황룡강) 주변 등 물놀이 가능구역에 대해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신동하 시 안전정책관은 "7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관리해 시민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습관화하고 각종 재난행동요령등을 숙지해 안전사고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동취재본부

워킹레일

Shinsegae **신세계**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061) 395-2580
 주간보호 061) 394-0123

장성읍 방울샘길 12 (영천리 1493-5)